

# 17세기 중·후반 近畿南人 학자의 학풍

— 허목, 윤희, 유형원을 중심으로 —

申 炳 周

- |                 |             |
|-----------------|-------------|
| 머 리 말           | 2) 교유관계     |
| 1. 학문적 연원       | 3. 학풍의 특징   |
| 2. 지역적 기반과 교유관계 | 4. 현실인식과 처세 |
| 1) 지역적 기반       | 맺 음 말       |

## 머 리 말

조선시대 사상사에 있어서 17세기 중·후반의 시기는 주자성리학이 대세를 이루어가는 한편 주자성리학에 대한 보완책으로 이단사상에 대한 관심도 제기되던 시기였다. 尹鑰나 朴世堂이 사문난적으로 몰렸던 것은 주자성리학의 권위가 컸다는 측면과 함께 주자성리학의 정통성에 대한 도전이 그만큼 거세었다는 측면을 반영한다.

이제까지 이 시기 주자성리학에 대한 비판적인 학풍은 주로 ‘실학’이라는 이름으로 개념화되었다. 17세기 이래로 재야출신 학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일어난 새로운 학문의 흐름을 실학이라고 개념화한 기존의 연구는 실학자를 중심으로하여 조선후기 사상사의 내재적 발전을 포착함으로써 조선후기 사상사연구에 크게 기여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 실학자들이 제시한 사회개혁책과 사상의 참신성이 다분히 발견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학문적 흐름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여전히 부진한 실정이다. 즉 이들의 학문과 사상이 조선시대 내부에 축적된 학문적 성과의 결과물이라는 측면은 상대적으로 강조되지 않았다.

이러한 기존의 사상사 연구 경향은 한편으로 실학이 조선후기 사회에 태동한 하나의 특수한 흐름으로만 파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실학의 주류적 흐름이 재야의 학자에게서 나타났다는 측면이 부각되어 조선후기 사상계에서 큰 역할을 한 재조 관료학자들의 학풍과 사회개혁책에 대해서는 소홀히 취급하게 되었다. 그러나, 조선후기에는 기존에 실학자로 분류되는 학자들 뿐만 아니라 재야와 관료의 경험을 동시에 하면서 학문활동과 정치 참여를 함께 해 가는 학자, 그리고 주로 관직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학문과 사상을 구체적으로 정책에 반영시키려고 한 학자들이 다수 출현했던 만큼 이들 학자들의 존재 양태를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해보는 연구시각이 필요 하리라 생각된다.

조선왕조는 사대부정권이라 할 만큼 학통, 학파 문제는 政派를 가르는 주요한 기준이 되었다. 16세기 이후 士林派 학자들이 정계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이들의 성장과 함께 성리학 연구가 심화되어 조선사회 내부에서는 학문적 축적이 있게 되었으며, 17세기후반 이후에는 국제정세의 변동속에서 청나라와 서양의 다양한 학문을 수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제까지 전통과 근대의 연결선상에 있었던 조선후기 지식인들에 대한 사상사연구는 사회경제사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하였다. 이것은 1960년대 이후 하부구조인 사회경제의 발전을 중심으로 근대의 맹아를 찾으려는 흐름이 주류를 이루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각종 문집이나 기록류 자료에는 조선후기의 지식인들이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음이 명백히 나타나 있다. 다른 어느 나라의 학자보다 조선후기의 지식인들은 문화적, 학문적으로 높은 수준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었음이 나타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조선후기에 학파, 정파적으로 주요한 위치에 있었던 근기남인 학자를 연구의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학풍과 사회사상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서인과의 정쟁에서 패배하여 17세기말에 이르러서는 정치일선에서 물러난 南人은 크게 경상도 지방의 재지지주로서 토착적 기반을 고수한 영남남인과 17세기이후 중앙에서 관직 생활을 하면서 생활 근거지를 경기도 일대로 옮긴 近畿南人으로 분류된다. 영남남인은 士族으로서의 체통을 유지하

면서 李滉의 학통을 고수하였다. 서울에서 정치일선에 참여하였던 근기남인은 예송논쟁을 통하여 서인과 정치, 사상대립을 했지만 1694년 갑술환국 이후에는 야당도 아닌 재야의 처지로 전락하여 대부분의 학자들은 서울 근처의 향리로 근거지를 옮겼다. 한편 광해군대에 대북정권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던 북인들 중 小北系의 후예들은 근기남인에 흡수, 통합되었다. 이처럼 가계나 학통상으로 소북계 출신이면서 근기남인에 흡수된 주요한 인물로서 정치, 사상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인물로는 許穆(1595-1682), 尹鏞(1617-1680), 柳馨遠(1622-1673)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인물 연구가 많으므로, 본고에서는 주로 이들의 학통과 학풍을 중심으로하여 이들의 학문이 갖는 역사적 위상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특히 이들이 당시의 주류적 흐름인 주자성리학만을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학문과 사상을 광범하게 포용, 흡수한 것은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지닌다고 판단된다. 본고는 주로 이들의 학풍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조선후기 사상사의 내재적 발전의 흐름을 점검해 보는데 주요한 목적이 있다.

## 1. 학문적 연원

윤휴, 허목, 유형원이 17세기 중, 후반 근기남인을 대표하는 학자임은 널리 알려져 왔지만, 이들의 학문적 연원에는 서경덕과 조식의 학맥을 계승한 北人の 학문적 흐름이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허목의 학문적 연원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는 허목이 정구의 학문에 영향을 받고 정구의 학문은 이황에게서 연원한 것으로 보아 허목이 영남남인의 학문적 전통에서 성장했다는 것으로서, 이러한 관점은 영남남인과 근기남인의 접목을 보여주는 주요한 요소로도 작용해 왔다.<sup>(1)</sup>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서는 정구의 학문이 이황과 조식의 학풍을 함께 계승한 점을 중시하고 허목의 학풍에는 조식의 학풍에 영향을 받은 측면이 많다는 지적도 제기되

(1) 李樹健, 1995 『嶺南學派의 形成과 展開』 일조각, 410-421쪽.

고 있다.<sup>(2)</sup> 이러한 측면은 허목이 조식의 신도비문을 쓴 것이나 조식의 애제자인 崔永慶이 기축옥사에 연루된 점에 대해 『기언』 곳곳에서 변호하고 있는 것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허목의 학풍에 대해서는 그의 六經 古學 중심의 학문 경향, 家風의 영향으로 도가적인 취향이 있다는 점 등은 이미 지적되어 왔다.<sup>(3)</sup> 허목의 아버지 許喬는 박지화의 문인인데, 박지화는 서경덕의 문인이다.<sup>(4)</sup> 박지화(1513-1592)는 서경덕의 문인 중에서도 스승의 道家的 성향을 가장 잘 계승한 인물로서, 서경덕에게서 『周易』을 배웠으며 당시 사상계의 한 조류였던 유·불·도 三教에 정통하였고 특히 禮를 제일 잘 알았다. 그의 행동 자체는 일반 유학자와 다른 점이 많아 80세가 되어도 정력이 보통 사람과 다른 선비로 평가되기도 하였다.<sup>(5)</sup> 『大東奇聞』에도 박지화가 양생술에 능통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sup>(6)</sup> 따라서 허목의 학풍에는 서경덕의 영향력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허목의 학풍 형성에 영향을 준 주요한 인물인 鄭述(1543-1620)의 본관은 淸州이며 경북 성주 출신이다. 13세에 종이모부였던 성주교수 오건에게 주역을 배웠다. 21세 때 이황을 만나 학문을 배웠으며, 24세에는 지리산의 德山에서 조식에게 학문을 배웠다. 이처럼 정구는 퇴계와 남명의 가르침을 동시에 받았는데, 星州라는 지역적 위치나 崔永慶·金宇顥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南冥系에 가깝고, 朱子性理學의 이론적 측면을 중시한 학문관은 退溪系에 가깝는 지적이 있다.<sup>(7)</sup> 그러나, 정구는 만년에 이르러서는 남명보다는 퇴계에 기울어지는 정치적, 사상적 위치에 서게 되었다. 정구

(2) 權仁浩, 1995 『조선중기 사림과의 사회정치사상』 274-276쪽 참조.

(3) 鄭玉子, 1979 「眉叟 許穆研究」 『韓國史論』 5.

韓永愚, 1985 「許穆의 古學과 歷史認識」 『韓國學報』 40.

(4) 『記言』 권43, 「許氏先墓碑文」

少受業於守庵朴枝華先生 先生花潭徐敬德先生之弟子也

(5) 『芝峰類說』 권18, 外道部, 「仙道」.

朴守庵枝華有道之士也 善攝養 常處一室 冬夏不出 年八十精力異於凡人

(6) 『大東奇聞』 明宗朝, 「朴枝華善攝養」

朴枝華旌善人 號守庵 ... 善攝養 常處室冬夏不出 八十精力異於凡人 當壬辰亂 避于楊根水濱 木書杜詩一句曰 白鷗元水宿 何事有餘哀 投水而死 人謂水仙

(7) 金恒洙, 1986 「寒岡 鄭述의 學問과 『歷代紀年』」 『韓國學報』 45 37-40쪽.

는 특히 金宇頤의 挽詩에서 ‘이황은 正脈이고 조식은 高風이 있다’라고 표현하여 정인홍을 대노하게 하였다.<sup>(8)</sup> 정구는 鄭仁弘이 주도한 晦退辨斥 이후에 사류들의 공론이 정인홍에게서 멀어짐을 알고, 文緯, 趙任道, 權濤, 姜大遂, 朴以赫 등을 규합함으로써 정인홍이 주도한 大北세력의 반대세력임을 분명히 하였다.<sup>(9)</sup> 정구의 학통에 대해서는 인조반정 이후의 남명학파나 퇴계학파에서 모두 그 嫡傳說을 주장하고 있는데, 정구를 퇴계의 적통으로 부각시킨 사람은 정구의 학문을 계승했던 許穆이었으며, 李植이나 河謙鎭은 鄭述를 남명의 문하에 가깝게 파악하였다.<sup>(10)</sup> 허목은 『기언』에서 자신이 말년에 정구의 문집 편찬에 참여한 사실을 회고하고 있다.<sup>(11)</sup> 정구는 『心經』 등의 성리설에 대해서는 李滉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지만 성리설 뿐만 아니라 諸子百家·歷史·醫藥·卜筮·風水地理 등에 깊은 관심을 가지면서 서경덕과 조식학파가 추구하였던 博學의 전통을 계승했다.<sup>(12)</sup> 결국 정구는 양자의 학문을 절충하였으면서도, 정치적 입장에 의해 퇴계문하로 이탈해 갔다고 평가할 수 있다.<sup>(13)</sup>

허목의 外祖가 되는 林悌(1549-1587)는<sup>(14)</sup> 일찍이 속리산에 들어가 그곳에서 은거하고 있던 處士 成運(1497-1579)에게서 학문을 배웠으며, 호방하고 쾌활한 시풍으로 이름을 날렸다. 임제는 武人계열에서 태어나 문과에 급제하였으나 출사를 단념하고 山林에서 주로 문학활동을 하면서 생애를 마쳤다. 임제의 이러한 처세에는 仲父 復이 양재역 벽서사건에 연루되

(8) 『光海君日記』 光海君 2년 3월 己亥.

鄭述嘗從事於植 亦遊於退之門 挽其友字 詩 有退陶正脈 山海高風之句 山海植之齋名也 仁弘亦大怒 著高風正脈辨 與述絕交

(9) 韓明基, 앞 논문 306쪽.

(10) 吳二煥, 「南冥學資料叢刊解題緒論」 『南冥學研究論叢』 1 342-344쪽.

(11) 『記言』 권56, 續集, 儒林, 「寒岡先生文集序」

晚歲末學及門者穆 少先生五十二歲 今八十有六 朝夕且死 忘其僭越 正其訛誤 考定編類 以爲寒岡先生文集

(12) 高英津, 1995 『조선중기 예학사상사』 한길사, 312쪽.

(13) 拙稿, 1995 「南冥 曹植의 學風과 南冥門人の 활동」 『南冥學研究論叢』 3, 315-319쪽.

(14) 『智水拈筆』 (1984, 아세아문화사) 「許眉叟」

眉叟許文正磁之曾孫 林白湖外孫 李完平孫壻也 文章經術足爲午人領袖

어 귀양을 간 것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임제는 성운의 가르침을 받고 中庸을 八百讀하는 등 經學에 침잠하였으며, 기개가 호방하여<sup>(15)</sup> 독서의 여가에 검술을 익히기도 하였다. 임제의 기풍에서 항상 칼과 惺惺子를 차고 다닌 조식과 비슷한 면모를 볼 수가 있다. 임제는 성운의 제문에서 성운을 가리켜 伯夷의 清白과 柳下惠의 和함, 옥의 윤택과 금의 정밀함을 견비하여 수백년만에 겨우 나올만한 인물로 칭송하였다.<sup>(16)</sup>

임제의 학문적 연원과 관련되어 주목되는 成運은 북인 학파의 원류가 된 남명 조식과는 가장 가까운 知己로서 서로 학문적 의견을 나누었다. 李滉은 ‘성운이 조식과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으니 조식은 드높고 뛰어났는데, 공은 순박과 화평으로써 조절하였다’고 평하였으며, 조식은 ‘성운은 정제된 금과 아름다운 옥과 같아서 자신이 미치지 못한다’고 평하였다.<sup>(17)</sup> 조식의 수제자로 칭해지는 정인홍 또한 箚字에서 ‘조식과 성운이 의리에는 비록 경중이 있으나 두 분 모두 스승이라 할 수 있다’고 하여 성운에 대한 존송을 표시하였다.<sup>(18)</sup> 정인홍은 보은현감으로 있을 때 성운을 從遊하여 師門이라 칭하기도 했다. 성운은 處士로 자임하면서 성리학 이외에 불교나 노장 사상에도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황이 성운과 성제원의 학풍이 노장을 숭상한다고 한 것이나,<sup>(19)</sup> 李植이 성운의 저술인 「虛夫贊」과 「醉鄉記」 등이 方外語라는 지적은<sup>(20)</sup> 성운의 노장적 학풍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15) 임제는 자신의 처지를 은유적으로 서술한 『意馬賦』에서 어려서는 학문에 뜻을 잃고 俠遊를 일삼고 酒肆에 빠졌음을 고백하고 있다. (『林白湖集』, 「意馬賦」 참조)

(16) 『林白湖集』 권4, 「祭大谷先生文」

其惟夷清惠和 玉潤金精 而鴻冥九霄 鳳舉千仞者 數百年來 僅有見於先生

(17) 『燃藜室記述』 권11, 明宗朝故事本末, 明宗朝遺逸, 成運

李滉每稱健叔(成運의 字) 清隱之致 令人起敬 公最與曹植爲莫逆友 植高邁卓絕 公以淳實平和濟之 植每稱健叔如精金美玉 吾所不及

(18) 『光海君日記』 권39, 3년 3월 丙寅

臣少事曹植重被開發之恩 事有如一之義 晚知於成運 開心相與不視爲後輩 分義雖有輕重 俱可謂之師生也

(19) 『澤堂集』 別集, 권15, 雜著.

成東洲悌元 倜儻有大略 通明經學 不事科業 而飲酒放蕩 時作狂態 世謂之放成 成大谷雲 養德山林 微酸不起 莫敢窺其涯際 二公皆在湖西 名竝一世 士大夫皆尙之 退溪獨不之取曰 大抵此皆老莊爲崇

성운은 임제 뿐만 아니라 尹鑣의 학문 형성에도 일정한 영향을 주었는데, 윤희는 외조부 김덕민을 통하여 윤희의 노장적인 학풍을 수용하기도 했다. 허목의 학문적 연원에 성운에서 임제로 이어지는 학문적 흐름이 있다는 점과 윤희의 학문형성에서의 성운의 영향력 등을 고려하면 결국 허목과 윤희의 학문적 연원에는 성운, 조식의 학풍이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허목은 정개청에 대해서도 존숭의 뜻을 표시하였다. 허목은 『記言』에서 정개청에 대한 행적을 자세히 기록하였으며, 정개청의 문집인 『愚得錄』의 서문을 썼다. 정개청은 서경덕의 학문이 기호지방 뿐만아니라 호남지방에 까지 전파된 사례를 보여주는 인물로, 당시 湖南士林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천문·지리·의약·복서·산수·진법·皇王帝의 霸道와 德功力의 기술 등에도 조예가 깊었으며, 일찍이 서경덕 문하에서 종유하면서 朴淳, 李山海, 盧守愼 등과 학문을 교류하였다.<sup>(21)</sup> 정개청은 1589년의 己丑獄事 때 ‘未反의 鄭汝立’으로 지칭될 정도로 역모사건에 깊이 관여되었다.

기축옥사의 주모자인 정여립의 학문연원은 확실치 않으나 연루자 대부분이 그 學緣에서 朱子의 학설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계열인 것이 주목된다. 정여립 사건 관련자의 공통된 학풍은 주자성리학 일변도가 아닌 다양성에 있었으며, 이러한 성향은 서경덕이나 조식의 학통에서 연원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sup>(22)</sup>

이 사건을 계기로 서경덕문인과 조식문인은 정치적 被禍者라는 공동의식을 가졌으며, 이러한 공속의식은 후대에 양학파가 결집될 수 있는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sup>(23)</sup> 기축옥사의 피화자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은 허목이 조식과 서경덕의 학풍을 접하는데도 주요한 요인이 되었으리라고 본다.

허목은 「易學傳授」라는 글에서 ‘선생(정개청)은 海上에서 태어나 古人

(20) 『澤堂集』別集, 권15, 雜著

今觀大谷集 則有虛夫贊醉鄉記 皆方外語也

(21) 高英津, 1995 『조선중기에학사상사』한길사, 121-122쪽.

(22) 이에 대해서는 李泰鎭, 1985 『朝鮮後期 政治와 軍營制 變遷』한국연구원, 66-68쪽 참조.

(23) 拙稿, 1996 「花潭 徐敬德의 學風과 現實觀」 『韓國學報』84, 71쪽.

의 학문을 호모했다. 서울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성현들의 책을 널리 읽었다. 몸가짐을 돈독히하여 禮를 좋아하고, 講學에 게으름이 없었으니 가히 豪傑다운 선비라 할 만하다<sup>(24)</sup>고 하여 정개청을 ‘豪傑之士’로 평했으며, 정개청의 문집인 『愚得錄』의 서문에서는 정개청과 최영경이 희생된 기축옥사가 儒林學士들의 통분을 자아낸다고 하였다.<sup>(25)</sup>

1589년(선조 22)에 일어난 기축옥사는 동인 내부에서 북인과 남인으로 분립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sup>(26)</sup> 흔히 정여립 모반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에는 정여립을 비롯하여 최영경, 조종도, 정개청, 이발 등 조식이나 서경덕의 문인들이 많이 연루되었다. 『연려실기술』에는 ‘己丑逆獄에 北人이 많이 죽은 것은 대개 汝立이 北人계열이었기 때문이다’<sup>(27)</sup>라고 하여 기축옥사로 말미암아 서경덕, 조식의 학통을 계승한 북인들이 많이 희생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의 한 연구에서는 허목이 趙綱과 함께 처음에는 정구의 문인인 文緯에게 師事하다가 문위의 추천으로 정구의 문하에 들어간 점, 허목과 조경은 다같이 정인홍과 마찬가지로 산림출신으로 정승의 반열에 오른 인물로서 훗날 허목이 조식의 신도비문을 써 준 점, 허목은 정인홍의 제자였던 정온의 문하에서 수학한 鄭岐胤을 사위로 맞은 점 등을 들어 허목의 학맥은 퇴계학과보다는 남명학과에 더 밀접하다고 보고 있다.<sup>(28)</sup>

결국 허목의 학문적 흐름은 이황과 조식의 학풍을 계승한 정구의 학문적

(24) 『記言』 권50, 續集, 「易學傳授」

先生生於海上 慕古人之學 遊京師 博讀聖人賢人書 既篤身好禮 講學不倦 可謂豪傑之士也 又如河圖之數 洛書之文 八卦之變 九疇之敘 先天之本 後天之用 與夫周天度數 日月運行 寒暑代序 星辰 次 無所不究 其未得之也 潛心積慮 至發憤忘寢食 久而後乃通 無一物不自得於心者 自號曰困齋 謂困而得之者也 其文可謂崇論博識 爲百代之書 遠近爭師之 ... 己丑之獄 先生死於窮北 其門人受業者 皆被罪至今百年餘 禍未已 至毀其祠 諸學者尊先生一一抵罪 禁錮者四百

(25) 『記言』 권56, 續集, 儒林, 「愚得錄序」

嗟乎 己丑之獄 儒林學士之痛何可勝道哉 守愚困齋二賢者 皆不免於禍

(26) 金龍德, 1976 『鄭汝立研究』 『韓國學報』 4.

(27) 『燃藜室記述』, 宣祖朝故事本末, 「東西南北論分」

己丑逆獄 北人多死 蓋汝立北類故也

(28) 權仁浩, 1995 『조선중기 사림과의 사회정치사상』 275-277쪽.



영향, 서경덕에서 박지화를 거쳐 부친까지 이어져 온 서경덕의 학풍과 함께, 오랜 세월의 修練과 自得을 통하여 ‘六經之學’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학풍을 개진한 것<sup>(29)</sup> 등이 서로 접목되어 형성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윤휴의 학문에 있어서 北人的 요소는<sup>(30)</sup> 무엇보다 그의 부친 윤효전의 행적에서 나타난다. 윤효전은 광해군 때 대사헌을 역임하면서 정치적으로 북인의 핵심적 위치에 있었던 인물로서 서인이 주축이 된 『인조실록』의 찬자들로 부터는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sup>(31)</sup> 윤효전은 서경덕의 문인인 閔純에게서 학문을 배웠는데, 윤효전과 서경덕의 학문적 연결상은 윤효전이 1605년에 『화담집』 간행에 참여했던 것에서 확인되고 있다. 윤효전은 이 책의 발문에서 자신이 민순에게서 배운 점과 민순이 서경덕에게 학문을 배웠던 점을 강조하였으며,<sup>(32)</sup> 서경덕의 저술에 대해서는 ‘화담선생의 1책은 다른 유학자 수십권과 비등하다’고 할 정도로<sup>(33)</sup> 높은 평가를 내렸다. 윤휴 또한 화담집의 중간발문을 쓰면서 부친과 서경덕과의 학문적 師承관계를 강조하고 화담집을 중간하는 것이 실로 자신이 바라던 사업임을 술회하고 있다.<sup>(34)</sup> 이처럼 윤휴 집안은 부자가 함께 화담집의 발문을 쓸 만큼 서경덕의 학문과 맥을 닿고 있었다.

윤휴의 조부가 되는 尹喜孫은 李仲虎의 문하에서 학문을 배웠는데 이중호는 서얼출신으로 서경덕의 문인록에 기재되어 있으며,<sup>(35)</sup> 서경덕과 함께

(29) 鄭玉子, 1979 「眉叟 許穆 研究」 『韓國史論』 5 231-232쪽 참조.

(30) 鄭豪勳은 윤휴의 학문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徐敬德의 學的 흐름, 成運의 老莊的 학문세계, 李睟光의 영향 등 세 가지를 들고, 윤휴의 생애는 정치적, 학문적으로 北人的 요소에 규정되면서 전개되었다고 파악하고 있다. (정호훈, 1993 「尹鑑의 經學思想과 政治社會 改革論」 고려대 석사논문 3-19쪽).

(31) 『光海君日記』 광해군 11년 2월 甲戌.

尹孝全卒 孝全外飭僞行 中藏巧詐 臨海之獄 一隨希奮指嗾 首發上章 遂居元勳之列 自是曲意順志

(32) 『花潭集』 권4, 「花潭先生文集跋」

嗚呼 小子足及於習靜閔氏之門 閔是受業於先生者也

(33) 『花潭集』 권4, 「花潭先生文集跋」

花潭先生一部兩卷書 騰如他儒數十卷書

(34) 『白湖集』 권22, 「重刊徐花潭集序」.

之先人 受學於習靜閔習靜先生 習靜于親炙於老先生者也 今日之事 鑑實願爲之執役焉.

며칠간을 예학을 강론하기도 했다.<sup>(36)</sup> 이처럼 윤희의 家學에서 서경덕의 영향력은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윤희의 학문에서는 成運의 학문적 영향력도 확인된다. 윤희는 성운의 제자였던 외조부 金德敏을 통해 성운의 학문을 접할 수 있었다. 성운의 근거지가 보은이었던 만큼 윤희가 어려서 외가인 보은에서 자란 경험은 통해 성운의 학문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윤희는 성운의 言行錄을 읽은 후의 감회를 기록하면서 성운이야말로 篤信好學하고 守死善道한 인물임을 칭송하였다.<sup>(37)</sup> 『숙종실록』의 史臣의 기록에서 ‘鑑家世本小北’<sup>(38)</sup>이라 하였는데, 이것은 정치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사상적인 측면에서도 그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유형원의 학문적 연원에서도 북인 학풍의 흐름이 있었음이 일정 부분 확인된다. 유형원의 아버지 柳憲은 당색으로 북인에 속한다. 유희는 인조반정 직후에 예문관 검열로 조정에 남았다가 곧 대간의 탄핵을 받았으며, 이어 광해군의 복위를 꾀하였다는 혐의로 柳夢寅 등의 옥사가 일어나자 이에 연루되어 심문을 받던 중 사망하였다. 북인이 이로부터 완전히 몰락함에 따라 유형원도 관직에 진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그가 扶安의 愚磻洞으로 은거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는 듯하다. 유몽인은 中北에 속한 인물로, 학문의 폭이 넓고 다양했으며, 상업과 유통경제를 중시한 인물이다.<sup>(39)</sup> 유몽인이 공초에서 유희가 자신과 뜻을 같이했다는 기록 등에서<sup>(40)</sup> 유희와 유몽인은 일정한 교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유형원은 유희가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려 사망하자 관직에 뜻을 버리고 12대조인 유관 정승이 청백리의 賜牌地로서 하사받은 부안의 우반동을

(35) 이중호의 학문적 연원에 대해서는 尹南漢, 1982 『朝鮮時代陽明學研究』 집문당 152-153쪽 참조.

(36) 『花潭集』 권4, 附錄, 「門人錄」

李仲虎字風后 號履素齋 孝寧大君之後 以師道自任 握衣受業者 日數百人 先生嘗與論禮 數日 嘆曰不可及也

(37) 『白湖集』 권22, 「書大谷先生言行錄後」.

若先生者 殆夫子所謂 篤信好學 守死善道 以道爲隱見者非也

(38) 『肅宗實錄』 권5, 숙종 2년 7월 戊子.

(39) 韓明基, 1992 「柳夢寅의 經世論 연구」 『韓國學報』 67.

(40) 『仁祖實錄』 인조 1년 7월 乙卯.

근거지로 학문연구에 전념하였다. 안정복이 쓴 유형원의 연보에서 ‘先生生於黨流橫流之際 遜世無悶 著書自樂’이라 쓴 표현은 이러한 입장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유형원에 대한 복인계 관료의 사상적 영향을 살펴볼 때 주목되는 인물은 고모부인 김세렴이다. 김세렴은 가계와 통혼권을 볼 때 복인계의 범주에 넣을 수 있는 인물로서,<sup>(41)</sup> 고모부이자 스승으로서 유형원의 학문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 5세 때 김세렴에게서 수학했으며, 15세 때는 병자호란을 피하여 김세렴의 본가를 찾아가기도 했다. 또한 김세렴이 함경도관찰사, 평안도관찰를 역임하던 시절에는 22~23세의 청년이던 유형원이 그 곳에 찾아가 기거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인연은 유형원이 북방에 대한 살아있는 지식을 얻는데 도움이 되었다.<sup>(42)</sup>

유형원의知己로 꼽히는 裴尙瑜 또한 그의 外家가 小北계에 속하는 인물이었다. 배상유의 모친은 소북의 영수 유영경의 손녀였으며, 배상유는 유영경의 손자 柳滄에게 학문을 배웠다. 이러한 가계적 기반 때문에 배상유 부자의 교유인사 중에는 소북계가 많았다. 그러나 인조반정을 계기로 그 교제범위는 남인계인사로 편중되어 갔으며, 교유관계가 유형원과 거의 일치하였다.<sup>(43)</sup>

유형원의 학문연원에 대해서는 율곡 이이의 학풍을 계승하여 실학의 開祖가 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유형원의 실학풍이 이황 학파의 성리학설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sup>(44)</sup> 그러나 유형원의 학풍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어느 하나의 학통만을 강조하는 입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유형원의 학풍형성에는 16세기의 대표적 학파인 이황학파, 이이학파, 조식학파, 서경덕학파의 학풍이 다양하게 흡수되었다는 점과 김세렴과 같은 인조대 실무관료 학자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었

(41) 拙稿, 1992 「17세기 전반 복인관료의 사상」 역사와 현실 8, 138-139쪽 참조.

(42) 千寬宇, 1982 「磻溪柳馨遠 研究 疑補」 『近世朝鮮史研究』 일조각, 345쪽.

(43) 李樹健, 1990 「晚學堂 裴尙 研究」 『嶠南史學』 5, 5-7쪽.

(44) 李佑成, 1988 「初期實學과 性理學의 關係 - 磻溪 柳馨遠의 경우」 『東方學志』 58.

다는 점 등 다양한 요소들이 접목되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2. 지역적 기반과 교유관계

### 1) 지역적 기반

근기남인 실학자들의 지역적 기반에 대한 기존의 연구성과는 이들이 대체로 서울근교의 경기도 일대의 농촌을 중심무대로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들이 재야학자로서 서울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 일대의 농촌에서 생활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들 대부분의 학자가 어느 고정된 지역에서만 활동한 것이 아니라 전국의 여러 지역에 두루 생활한 경험을 가졌던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들은 부친의 任地를 따라 간다든가, 전란을 피해서 外家 등 자신과 연고지가 있는 곳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민생의 현실을 목격했는데, 이들의 학풍과 사상의 형성에는 이러한 다양한 지역적 경험 또한 큰 영향을 주었으리라고 본다.

허목은 서울의 창선방에서 출생하고 생활근거지인 경기도 연천에서 만년을 보냈지만, 젊은 시절에는 부친의 임지를 따라 양성, 포천 등 경기도 일대를 비롯하여 산음, 창녕, 의령 등 경상우도의 각 지역에 거처했다. 1617년 아버지가 거창현감에 임명되자 아버지를 따라서 文緯를 師事하였으며, 그의 소개로 정구를 찾아가 학문을 배웠다.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는 강원도로 피난했다가 1638년에는 의령에서 살았다. 창녕이나 의령은 경상우도 지역으로 조식과 정인홍의 학문적 영향력이 큰 곳이었다. 이후에도 경상우도 지역에서 주로 생활하다가 1646년 고향인 경기도 연천으로 돌아왔다. 허목이 『東事』라는 역사책에서 「地乘」이라는 항목을 따로 설정하고 남북 3천리 동서 2천리간에 풍속이 서로 다름을 강조하는<sup>(45)</sup> 風土史觀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도<sup>(46)</sup> 여러 지역을 답사한 경험에서 나온 것으로

(45) 『記言』 권35, 外篇, 東事, 「地乘」

南北三千里東西千里 風氣之殊 聲音服食嗜欲 與中國異俗 蓋方外別國

(46) 허목의 역사인식과 「地乘」에 대해서는 韓永愚, 1985 「許穆의 古學과 歷史認識」, 『韓國學報』 40 참조.

보아야 할 것이다.

『記言』에서 李濟臣,<sup>(47)</sup> 裴尙虎<sup>(48)</sup> 등 경상우도에서 배출된 학자들과 인연을 맺으면서 이들에 대한 행적을 기록하고, 경상우도의 학자 중에서 많은 피화자가 생긴<sup>(49)</sup> 기축옥사가 誣獄임을 밝히는 내용이 자주 언급되어 있는 것도 그의 이러한 지역적 기반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허목은 기축옥사가 誣告에 의한 冤死라는 사실을 『기언』 곳곳에서 피력하였으며, 특히 최영경과 정개청의 죽음을 안타가워 하였다. 또한 허목의 외조가 되는 林梯의 아들 林地가 기축옥사에 연루되어 一家가 체포되고 임지는 北道로 유배되는 등<sup>(50)</sup> 허목의 학풍과 사상 형성에 기축옥사의 영향은 매우 컸던 것으로 여겨진다.

허목의 학풍과 사상의 형성에서 己丑獄事가 가지는 의미는 북인학과와 허목의 학문적 연결고리를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찾아진다. 기축옥사의 피화자인 최영경이 조식의 풍모를 꼭 닮았다는 조식의 문인이라는 점과, 정개청이 서경덕의 문인이라는 점은 허목의 학풍이 조식과 서경덕 학파의 기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李恒福의 인물을 논한 글에서는 이항복이 저술한 『기축록』이 없어지고 새로 고쳐 쓴 『기축록』이 유포되는 사실을 지적하여,<sup>(51)</sup> 기축옥사가 서인들에 의해 조작되었음을 암시하였다. 허목과 조식, 서경덕 문인들과의 인연은 특히 『기언』의 人物편과 世變편에 잘 드러나 있다. 조식의 외손자사위 김우옹의 문집 서문을 써 준 것이나,<sup>(52)</sup> 광재우의 의병활동과 은퇴후에 辟穀道引하고 신선의 술법을 배운 사실을 소개한 글,<sup>(53)</sup> 허엽과 민순의 제자로서 서경덕의 학통을 계승

(47) 이제신은 조식의 문인이며, 『기언』에는 이제신이 조식에 배운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記言』 권 21, 中篇, 羈旅, 「陶丘公事」事南冥隱者 其弟子傳載其事頗詳).

(48) 『記言』 권19, 中篇, 丘墓三, 「藤庵處士(배상호: 필자주)銘」

萬曆末 穆從先人累官大嶺之南 初識公於居陀客館

(49) 기축옥사 때 조식문인들은 대부분 화를 입었다. 최영경은 정여립이 謀主로 했다는 吉三峰으로 오인받아 옥사했고, 趙宗道, 柳宗智 등은 투옥되었으며, 이 사건의 여파로 정인홍과 김우옹은 삭탈관직을 당했다.

(50) 『宣祖修正實錄』, 선조 23년 4월 壬申.

(51) 『記言』 권10, 中篇, 人物, 「白沙李相國事」

(52) 『記言』 권10, 中篇, 人物, 「東岡先生文集序」

한 洪可臣(1541-1615)의 문집 서문을 써 주면서 기축옥사에 연루되어 이발과 이길 형제가 죽자 땀을 한 사실을 기록한 것<sup>(54)</sup> 등은 이러한 예로 볼 수 있다. 「崔守愚事」의 말미에서는 위작된 기축록이 세상에 전해지는 사실을 개탄하고, 조식이 최영경을 처음 보고 高士로 허여한 사실과 영경이 당시의 현실을 ‘國是靡定 公正不行’이라고 인식한 것을 소개했다.<sup>(55)</sup> 최영경의 이러한 현실인식은 스승인 조식의 그것과 거의 유사하였으며,<sup>(56)</sup> 허목이 이러한 사실을 소개한 것에서 그의 현실인식에 일정부분 공감했음을 알 수 있다.

윤희는 부친의 임소인 경주에서 출생한 이후,<sup>(57)</sup> 선영이 있는 여주, 서울, 그리고 전란을 피해서 간 외가인 報恩의 三山과 公州의 柳川 등지에서 젊은날 학문을 닦았다. 윤희는 1624년 이괄의 난 때 여주 舊第로 피난갔으며,<sup>(58)</sup> 1627년의 정묘호란으로 보은의 외가에 피난했는데 이때 외조부 김덕민으로부터 황극경세서를 배우기도 했다. 이 곳에서의 생활은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학문활동을 했던 처사형 학자 성운의 학문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sup>(59)</sup> 윤희는 22세 되던 해에는 어머니를 모시고 공주 柳川에 이거했으며, 이후에 여주, 서울, 유천 등지를 주 근거지로 하였다. 윤희가 송시열·송준길·권시·이유태·윤선거 등 충청권 인사와 두루 교분을 형성한데에는<sup>(60)</sup> 외가가 보은이고 공주에서 생활한 지역적 기반이 큰 작용을

(53) 『記言』 권10, 中篇, 人物, 「忘憂公遺卷序」

(54) 『記言』 권10, 中篇, 人物, 「萬全堂生生遺卷序」

先生少遊草堂幸村之門 樂古人之學 當己丑獄兩李死 先生爲之棺殮而哭之

(55) 『記言』 권26, 下篇, 世變, 「崔守愚事」

先生辭持平疏曰 當今國是靡定 公正不行 朋儻成風 紀綱日墮 此實消長安危之幾云

(56) 『南冥集』 권2, 「乙卯辭職疏」 참조.

(57) 『白湖集』 附錄, 年譜

萬曆四十五年丁巳十月十四日乙巳 先生生于慶州之衙舍 初先大夫沂川公沂當光海政亂 知世道之不可掇 乞養求外二月尹東京 十月先生生 寒岡鄭先生遂 素與沂川公交好 是日適至府舍 公曰大賢臨訪 兒子適生 豈不益私門之光慶乎

(58) 『白湖集』 年譜

四年甲子先生七歲正月避兵于驪州

(59) 『白湖集』 권22, 「書大谷先生言行錄後」 참조.

(60) 『肅宗實錄』 권3, 숙종 원년 4월 癸丑

한 것으로 생각된다. 유희가 한 때 서인으로 지목된 것은<sup>(61)</sup> 이처럼 서인 핵심인물들과의 폭넓은 교유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

유형원은 최후에는 선대부터 거주했던<sup>(62)</sup> 전북 부안의 우반동에서 거처했지만, 젊은 시절에는 전국 각지를 두루 돌아다녔다. 1636년에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가족들과 함께 원주로 피난을 갔으며, 1642년에는 경기도 지평현에,<sup>(63)</sup> 다음해에는 여주에 거처를 잡았다.<sup>(64)</sup> 1643년 겨울에는 고모부 김세렴이 함경도관찰사로 부임하자 그 곳에 따라 갔으며, 김세렴과 함께 북방의 평안도, 함경도를 유람할 기회를 갖기도 했다.<sup>(65)</sup> 이러한 북방에서의 생활 경험과 인조대 실무관료로 활약한 김세렴의 사상은 유형원의 사회 개혁책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유형원은 1644년에는 김세렴의 사위로서 堪輿에 자질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던 李喜雨와 함께 답사를 하였으며,<sup>(66)</sup> 이후에도 衿川 安養洞, 嶺南,<sup>(67)</sup> 湖西지방, 금강산 등지를 두루 돌아다녔다.<sup>(68)</sup> 유형원이 『東國輿地志』라는 지리지를 편찬할 수 있었던

少孤 丙丁亂後 寓居湖西 與宋時烈宋浚吉權 尹宣舉等從遊 推尊李珥成渾時烈等  
愛其才學 忘年爲交 宣舉尤重之 許以經濟之士 其後閔鼎重薦于孝宗朝

(61) 『肅宗實錄』 숙종 2년 7월 戊子.

生員金文夏等上疏 伸救尹鑄 上剖答之 鑄家世本小北 而宋時烈道義相許 大爲閔  
鼎重等所推譽 至被孝廟側席之盛遇 終不出 虛譽日隆洽 是時人目之謂西人

(62) 유형원의 선대부터 愚磻洞에 은거했음은 김세렴의 다음의 詩에서 나타난다. 이  
시에는 우반동의 계곡을 '磻溪'라고 했음을 알 수 있다.

『東溟集』 권1, 詩, 「次愚磻別墅韻一岳君柳正郎(유형원의 조부)卜居扶安之縣愚  
磻」卜居從物外 當戶綠蘿陰 水接磻溪...

(63) 『磻溪雜藁』(1990, 여강출판사) 「磻溪先生年譜」

先生二十一歲 ... 移居砥平縣花谷里墓下

(64) 위와 같음.

先生二十二歲 移居驪州白羊洞

(65) 위와 같음.

先生二十二歲冬 往拜東溟金先生于咸興 時東溟爲北伯 尋授關西伯 先生此行 縱  
觀西北山川而歸

(66) 위와 같음.

先生與李喜雨 踏山 閱月還家 喜雨卽東溟女婿 ... 有文章俊才 兼通數術 又深於堪  
輿

(67) 위와 같음.

先生二十七歲春 遊嶺南 時外兄趙松年 爲金山宰 乃往嶺南 遍觀山川 以求避世之  
地

(68) 『磻溪雜藁』 『磻溪先生年譜』

先生二十七歲春 遊嶺南 時外兄趙松年 爲金山宰 乃往嶺南 遍觀山川 以求避世之  
地

것에는 이러한 경험이 큰 힘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sup>(69)</sup> 『동국여지』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대 자료를 수집한 바탕에 그 스스로 여러 지역을 답사한 경험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sup>(70)</sup>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허목, 윤희, 유형원은 경기도 일대라는 한정된 지역에서만 거쳐했던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지역 경험을 가진 학자라는 점이 밝혀졌다. 이들의 학풍과 사상은 한정된 지역적 기반에서 나온 학문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거처한 경험과 이에 따른 학자들과의 교류 등 폭넓은 기반에서 형성되었으며, 이러한 측면은 이들의 학풍과 사상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더욱 크게 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 2) 교유관계

근기남인 학자들은 우선 서로간에 교분을 형성하고 있었다. 윤희와 허목의 관계는 1659년에 전개된 己亥禮訟을 계기로 밀접해졌다. 양인 모두가 六經 古學에 학문적 기반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예송문제에 대해서는 같은 보조를 취할 수 있었다. 특히 1674년 갑인예송의 승리는 이들의 정치적 입지를 넓혀주는 계기가 되었다. 숙종이 즉위한 후에 허목과 윤희가 나란히 儒賢으로 정치의 핵심에 등장할 수 있었던 것에는 예송논쟁에서의 승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소북세력은 여전히 정치적으로 잔존하고 있었으며, 소북세력은 윤희를 구심점으로 하여 세력 결집을 꾀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sup>(71)</sup> 당시 홍주에 사는 幼學 柳長台도 상소문에서 朋黨의 폐해를 논하면서 ‘지금의 봉당으로는 西人, 南人, 小北

(69) 『東國輿地志』에 대해서는 梁普景, 1992 「반계 유형원의 『東國輿地志』」 『토지연구』 3, 참조.

(70) 예를 들어 정도전 묘소의 경우 『동국여지』의 과천현조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신증동국여지승람』이나 이를 참고한 후대의 관찬지리지에는 이에 관한 기록이 없다. 이것은 유형원이 실제의 확인을 통하여 이 책을 저술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71) 『肅宗實錄』 숙종 2년 7월 戊子.

今上即初始爲南人所薦拔 乘時驟升 與許穆並稱爲儒賢 不但人目鑿爲南人 鑿之所以自持其身者 亦如此 而作事乖舛 時人亦多不厭於是鑿失望憤喪 與其儕流 轉成嫌隙 至是小北輩 乘此機 出力助之 欲 反本爲其黨 鄭樸既陳疏伸辯 文夏等以小北家子弟 又繼之 時論惡之



의 세 당이 있다'고<sup>(72)</sup> 하였다.

허목이 堂兄 許厚에게 보낸 편지에는 복제문제를 놓고 윤희와 3년상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며,<sup>(73)</sup> 윤희의 독서기를 보고 쓴 글에서는 '세 번이나 애송했으며, 가슴이 상쾌하다'고 하여,<sup>(74)</sup> 깊은 감명을 받은 소감을 피력하였다. 특히 '吾希中'이라 표현한 것에서 윤희와의 친밀한 교분이 형성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효종 때 허목과 윤희는 심지원에 의해 함께 천거되었으며, 효종이 병조 판서 원두표에게 윤희가 어떤 사람인가를 묻자 '古書を 많이 읽었다'고 대답한데서 보듯<sup>(75)</sup> 윤희의 博學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 윤희는 정개청을 배향한 서원의 원장을 맡을 정도로 정개청과도 학문적 인연이 깊었다. 1680년 경신환국으로 서인이 정권을 잡은 후에 士習을 바르게 한다는 명분으로 윤희가 원장으로 있던 정개청의 서원을 철폐한 것에서도<sup>(76)</sup> 정개청에서 윤희로 이어지는 학문적 흐름을 차단하려했던 서인측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허목과 유형원과도 일정한 교분이 있었는데, 이들의 교분에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 유형원의 고모부이자 스승인 김세렴이다. 허목이 73세 되던 해에 유형원은 자신의 고모부인 김세렴의 문집에 서문을 써 줄 것을 부탁했으며, 허목이 유형원에게 쓴 편지에서는 유형원이 허목의 古體 글씨를 칭찬한 사실이 나타나 있다.<sup>(77)</sup> 허목은 1657년에 김세렴의 일본 통신사 기행문인 『東溟海槎錄』의 서문을 써 주었는데, 그의 역사서 『東事』 外記에 실린 「黑齒列傳」은 『동명해사록』의 서문에 나오는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보아 김세렴은 허목이 일본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을 준 인물이었음을 알

(72) 『肅宗實錄』 숙종 25년 6월 己未.

(73) 『記言』 권2, 상편, 學, 「答堂兄雪翁」

(74) 『記言』 권3, 上篇, 學, 「答希中」

蒙示讀書記數篇 多發越動人 非吾希中 安得有此說話 愛誦三復 兇次爽然

(75) 『孝宗實錄』, 효종 6년 3월 癸巳.

(沈)之源曰 臣聞許穆尹 力學多藝 行宜過人 如此之人 宜加擢用 以爲勸獎矣 上曰尹 何如人乎 兵曹判書元斗杓曰 乃孝全之子 而多讀古書云 上曰言于該曹 使之收用

(76) 『肅宗實錄』 숙종 6년 閏8월 庚戌.

(77) 『記言』 別集, 권6, 書牘, 「與柳馨遠德夫」

嗟乎 文翁在時 爲求古文曰 滄州柳君請之 僕嘗因文翁 久聞風聲 如相見即許諾

수 있다.<sup>(78)</sup> 『기언』에는 허목이 김세렴의 묘갈명, 행장, 묘표 등을 써 준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sup>(79)</sup> 사림사회에 있어서 祖先·師友 사이에 오가는 文字는 곧 世誼로 간주하여 동족·동향·동료 등으로 맺어진 인간관계 못지않게 중시되어 조선후기 학파·당파 사이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 점을 고려하면<sup>(80)</sup> 허목과 김세렴, 유형원 사이의 관계는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유형원의 『동국여지지』의 본문 중에는 허목의 『遊山錄』, 『舟行記』, 『丹陽山水記』 등의 저술이 포함된 것이 보이는데, 이것은 유형원이 허목을 만나 그의 저술들을 접촉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sup>(81)</sup> 이러한 사례는 유형원의 학풍 형성에 허목의 영향력이 컸음을 보여주고 있다. 허목은 당시 유형원을 일컬어 ‘柳某 王佐之才也’라하여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sup>(82)</sup>

김세렴 이외에 허목과 유형원의 관계에 연결고리 한 인물로는 배상유(1622-1686)를 들 수 있다.<sup>(83)</sup> 배상유는 유형원과 동갑으로 그의 딸이 유형원의 며느리가 될 정도로 교분을 형성했는데, 배상유는 허목과도 교분이 두터워 서신을 교환했다. 배상유는 윤희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그의 조급한 북벌계획에 대한 충고와 함께 『반계수록』을 근거로 한 田制 개혁안 등을 제시했다. 윤희는 유형원의 5년 연장으로 유형원은 51세때 윤희에게 처신을 바로 할 것을 충고하기도 하였다.<sup>(84)</sup>

이처럼 허목과 윤희, 유형원은 서로간에도 일정한 교분을 형성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들이 단지 정치적인 입장에서 남인이라는 공통점을 갖는 이외에도 학문적 원류가 북인학파에 있다는 점, 주자성리학만을 고집하지 않

(78) 『東溟集』 권8, 「東溟海槎錄序」 및 韓永愚, 앞논문 129쪽 참조.

(79) 『記言』 別集, 年譜,

辛酉先生八十七歲 ... 撰金東溟世廉墓碣 先生舊撰其行狀及墓表陰記

(80) 李樹健, 1995 『嶺南學派의 形成과 展開』 410쪽.

(81) 梁普景, 1992 「반계 유형원의 『동국여지지』」 『토지연구』 3권 4호, 137쪽.

(82) 千寬宇, 1982 『近世朝鮮史研究』 344쪽.

(83) 이수건, 1990 「晚學堂 裴尙 研究」 『嶠南史學』 5, 7쪽.

(84) 『磻溪雜藁』, 「磻溪先生年譜」

先生五十一歲 書戒尹希仲 白湖時有盛名 先生 書戒之曰 人之持身處世 不密則 悔不可追云云

는 博學風 등 학문과 사상에서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이 많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이들은 정치적으로 남인의 대표적인 인물로 꼽히지만 실제의 교유 관계는 오히려 특정한 당색에 좌우되지 않고 비정치적인 인사들이 많았다. 허목은 평생의 畏友가 정치색이 별로 없는 趙綱이고 스스로 師表로 삼은 인물이 李挺豪, 許厚, 李命雄 등이었으며,<sup>(85)</sup> 생애의 대부분을 출사 보다는 은둔자의 입지에 서 있었다. 윤희는 젊은 시절부터 서인계 인사들과 폭넓게 교유하여 한때 서인으로 지목되기도 했으며, 유형원 또한 최고의 知己가 지방에 은거한 학자 배상유에 불과할 정도로 정치적으로 黨色에 집착한 교분을 형성하지 않았다. 결국 이들의 교유관계는 정치적 야망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졌으나, 허목과 윤희가 남인의 영수가 된 것에서 보듯, 이들의 학문적 명망을 이용한 정치세력들에 의해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정치적으로 이용된 측면이 컸다고 할 수 있다.

### 3. 학풍의 특징

17세기 중·후반 근기남인 학자들의 學風 중에서 우선 주목되는 것은 ‘古學’ 또는 ‘古文’을 중시했던 점이다. 주자성리학에 충실했던 학자들이 朱子書나 四書에 비중을 둔 것과는 달리 근기남인학자들은 원시유학인 고학에 심취한 경향이 강하였다. ‘고학’은 孔壁에서 나왔다고 하는 이른바 古文經典을 중시하고, 시경·서경·주역·춘추·예기·악경 등 六經을 기본경전으로 중시했다. 이들 학자들이 고학을 중시한 것은 三代의 시대를 이상으로 보고 이 시대를 개혁의 모델로 생각한 것과 관련이 깊다.

허목은 그의 문집인 『記言』의 서문 첫머리에서 ‘穆篤好古書 老而不怠’라 하여 고서에 대한 관심을 피력한 후에 ‘記言의 글은 六經으로 근본을 삼고 예악을 참고하고 百家의 辨을 통하여 분발하고 힘을 다한지 50년이 되었다’고 자부하였다.<sup>(86)</sup>

(85) 鄭玉子, 1991 『朝鮮後期 知性史』 일지사 102쪽.

(86) 『記言』 「記言序」

고문을 중시한 것은 16세기의 학자로 북인 학풍의 원류가 된 조식에게서도 발견된다. 조식은 左傳과 유종원의 문장을 좋아하고<sup>(87)</sup> 奇古한 문장을 숭상했다고 하며,<sup>(88)</sup> 그 스스로 문장이 科文에는 맞지 않았다고 술회하고 있다.<sup>(89)</sup> 허목의 고문 중사와 조식의 이러한 점이 바로 상통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sup>(90)</sup>

이들은 당시의 주류적 학풍인 주자성리학 보다는 육경의 학문에 직접 뛰어들어가 그 本義를 해석하려 하였다. 이러한 학풍은 자연 諸子百家의 학문이라든가, 천문, 지리, 노장학 등 다양한 범위의 학문에 대해서도 스스로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와 연결된다. 허목, 윤희, 유형원이 공통적으로 博學風의 학자의 측면을 보이는 것은 이러한 학문경향과 관련이 깊다고 여겨진다. 六經 古學을 학문의 중심에 두었기 때문에 당시의 주류적 흐름인 주자성리학의 이론적 천착에 집착하지 않았으며, 多讀을 통한 여러 학문과 사상의 조류를 접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윤희가 老子道德經의 序文을 쓰고, 허목이 清士列傳을 기록하여 도가풍의 학자들에게 관심을 보인 것, 유형원이 다양한 분야의 책을 저술하고<sup>(91)</sup> 상공업 분야에 관심을 둔 것 등은 다양성을 추구한 이들의 학풍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허목의 문집 『기언』은 그 명칭부터 일반 士大夫의 문집과는 취향을 달리하며,<sup>(92)</sup> 그 내용의 다양함과 細目の 설정, 古典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言則必書 日省而勉焉 名吾書曰記言 說讀古人之書 心追古人之緒 日豐豐焉 記言之書 本之六經 參之以禮樂 通百家之辨 能發憤肆力且五十年.

(87) 『南冥集』 권4, 「行錄」

少時 大奮業文章家 最善讀柳文

(88) 『南冥集』 권4, 「行狀」

稍長喜爲文 務爲奇古 以文章自負

(89) 『南冥集』 권2, 「書圭菴所贈大學後」

遂輟司馬學 只就東堂三居一等 或進或黜 年已三十餘矣 又慮爲文 不中程式

(90) 權仁浩, 1997 「南冥學派의 實學思想 研究」 『南冥學研究論叢』 5 363쪽.

(91) 유형원은 『紀效新書節要』, 『參同契抄』, 『武經』 등의 책을 저술하였으나, 현전하지는 않는다.

(92) 『智水拈筆』 (1984, 아세아문화사), 「許眉叟」

所著文集 不曰眉 集而曰記言 實取楊子雲法言王仲淹中說之義 而托名於論語也

博學함은 다음 세대에 하나의 思潮를 성립시킨 남인실학파의 백과사전적인 기술의 효시로 보여진다.<sup>(93)</sup>

허목의 학풍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古學의 강조로서 이러한 점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다.<sup>(94)</sup> 복인의 학풍이 순수성리학과는 다른 이질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알려진 바와 같이 허목은 주자성리학에서 탈피하여 원시 유학체제로의 복고성을 보이면서 六經중심의 古學風을 이루었다.<sup>(95)</sup> 허목은 제자백가의 학문이 공자의 학술에는 무익한 것이지만 천하의 변고를 널리 모았다는 점에서 그 이점이 있다고 평했으며,<sup>(96)</sup> 그 스스로 ‘務博不務擇’이라하여 박학에 힘쓴 사실을 인정했다.<sup>(97)</sup> 허목의 이러한 박학풍은 학문에 있어서 실천을 중시한 것과도 연결된다. 성리학의 이론에만 빠지지 않은 사고는 학문이 곧 실용, 실천이라는 사고로 이어졌다. 허목이 학문에 있어서 人事를 강조한 것은 「答學子」라는 글에서도 발견된다. 이 글에서 허목은 ‘학자는 모름지기 人事에 나아가 그 이치를 구한 후에 가히 知行이 並進하는 것을 말할 수 있다. 人事의 학문에 이르지 않고 먼저 性命의 근본을 구하면 근본이 서지 않고 實心도 완전하지 않아 갑자기 얻어서 갑자기 잃고 한갓 범람되어 無益하다’고 하였는데,<sup>(98)</sup> 이 글에서 人事의 학문을 우선시한 허목의 학풍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은 「答文翁」에서 근세 학자들의 폐단으로 실천의 부족을 지적한 것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sup>(99)</sup>

(93) 鄭玉子, 1991 「眉叟 許穆의 學風」 『조선후기 지성사』 116쪽.

(94) 鄭玉子, 1979 「眉叟 許穆研究」 『韓國史論』 5.

韓永愚, 1985 「許穆의 古學과 歷史認識」 『韓國學報』 40.

(95) 鄭玉子, 1979 「眉叟 許穆研究」 『韓國史論』 5.

(96) 『記言』 권5, 상편, 文學, 「文叢序」

文叢者 集諸子諸家語 叢取博物 學孔子之蓮叢者也 諸家左氏穀梁氏 ... 刑名法術 滑稽遊俠從橫用兵 皆無益於孔子之術者 然其博物天下之變 則得矣

(97) 『記言』 권5, 上篇, 文學, 「答客子言文學事書」

務博不務擇 聖人之外 踰越百家 如老子之虛無 莊周之誕 左氏國語戰國長短之言 及屈原之怨 馬遷之感憤 相如楊雄之縱諛 無所不讀 十年不悟所得 流湯放肆 卒無裨無益於心術之要

(98) 『記言』 권1, 上篇, 學, 「答學者」

學者須就人事求其里 然後可言知行兩進 人事之學未至 先求性命之本 根本未立 實心未完 旋得旋失 徒汎濫無益

(99) 『記言』 권1, 上篇, 學, 「答文翁」

윤희에 관한 기록에서도 博學風은 확인된다. 윤희는 『老子道德經』의 서문을 썼으며,<sup>(100)</sup> 연보 56세조에는 서울 쌍계동의 夏軒에 기거하면서 天文·地理·揀蓍·韜鈴 등의 책들을 섭렵하였다는 기록이 보인다.<sup>(101)</sup> 윤희의 박학풍에는 서경덕에서 민순, 윤희전으로 이어지는 흐름과 함께 이수광의 아들인 李敏求에게서 학문을 배운 것<sup>(102)</sup>도 일정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수광은 『芝峰類說』의 저술에서 보듯 조선시대 백과사전적인 학풍의 효시로 꼽히는 인물이다. 이민구가 부친의 이러한 학풍에 접했음은 확실하며, 그 학문을 계승한 윤희에게서도 이러한 학문적 전통이 발견되는 것이다.

윤희의 학문은 성리학을 기조로 하면서도 老莊學, 陽明學 등에 경도되는 등 醇正朱子學과는 일정한 거리를 가지고 있었던 徐敬德, 成運, 李睟光의 학문적 영향에서 이루어졌다고<sup>(103)</sup>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家學의 세가지 흐름에는 영남 남인이나 기호 서인보다는 주자학의 이론논쟁에 깊이 빠지지 않았던 학자들의 학문적 전통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유형원의 학풍에서도 박학풍은 주요한 요소이다. 유형원의 학문에 큰 영향을 준 인물로는 고모부인 金世廉과 외숙인 李元鎭을 들 수 있다.<sup>(104)</sup> 김세렴은 인조대 실무관료로서 학문의 폭이 넓었으며,<sup>(105)</sup> 이원진 또한 博學으로 명망이 있었다.<sup>(106)</sup> 유형원의 학문은 그 범위가 매우 넓어서 ‘傳’의 표

近世學者之弊 踐履不足 先立意見 轉成矯激 浮薄日滋 忠信篤厚之風 大不如古人有一分 實見必有一分實行 知與行不相懸絕

(100) 『白湖集』, 권22, 「老子道德經序」

老子古之修道養壽者 且周之柱藏史也 其觀天下之事 閱古今世故之變 亦熟矣.

(101) 『白湖集』 年譜

先生四十六歲 在夏軒 ...於天下之書無不讀 天下之理無不究 自三代以來禮樂刑政 治亂得失 省演其義而極其趣 以至天文地理揀蓍韜鈴之書 亦且研窮而思索之

(102) 『白湖集』 권22, 「書東洲可馬回年宴詩帖後」.

(103) 정호훈, 앞논문

유영희, 1996 「새로운 경전해석의 등장」 『조선유학의 학파들』(예문서원), 292-293쪽.

(104) 『磻溪雜藁』 「磻溪先生年譜」

六年丙寅 先生五歲 始入學 受業于太湖二公及姑夫金判書世廉

(105) 拙稿, 1992 『17세기 전반 북인관료의 사상』 『역사와 현실』 8, 144-145쪽 참조.

현을 빌면 文藝詞章·兵謀師律·天文地理·醫藥卜筮·算計方譯의 類에 이르기까지 두루 능통했으며, 이에 관한 저서로는 『東史綱目指南』·『正音指南』·『東國文鈔』·『紀效新書節要』·『參同契抄』·『武經』·『地理群書』 등 성리학·역사·지리·병법·음운·仙術·문학과 관계된 저서 20여종이 있었다고 하나,<sup>(107)</sup> 현재 전하는 책으로는 『반계수록』과 『동국여지지』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현존하는 『반계수록』과 『동국여지지』를 통해서도 유형원의 박학풍과 실용적인 학문경향은 능히 짐작할 수 있다. 『반계수록』은 중국과 우리나라 역대의 서책들을 두루 섭렵한 바탕위에서 나온 것이었으며, 『동국여지지』 또한 많은 지역을 답사한 바탕위에서 나온 것이었다. 남인 실학자의 계보에 대한 연구에서 유형원의 학문이 이익을 거쳐 안정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이미 통설로 되어 있는데, 이익이 『성호사설』을, 안정복이 『雜同散異』와 같은 類書類를 저술한 것에서도 유형원의 박학풍의 영향력을 생각할 수 있다.

위에서 이들 학자들의 博學風의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보았지만 그 중에서도 허목의 도가적 취향, 윤희의 尙武 경향, 유형원의 화폐 중시 등은 특히 주목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인식은 이들의 학풍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허목의 도가적 취향은 『기언』의 많은 부분에 나타나지만 특히, 道脈을 가진 인물을 정리한 「淸士列傳」이 대표적이다. 『청사열전』은 金時習, 鄭希亮, 鄭籛, 鄭礎, 鄭斗 등 조선시대에 도가적 취향을 보인 인물에 관한 열전으로 허목이 이러한 인물들을 선호했음을 보여준다. 허목의 이러한 취향은 외조인 임제의 은자적인 처세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sup>(108)</sup> 『청사열전』에 나오는 인물들은 조선시대 道家의 학맥을 정리한 이식의 『海東傳道錄』이나 홍만종의 『海東異蹟』에도 나오는 인물들로 이러한 인물들의 존재는 조선시대에 三敎會通을 추구한 지식인들이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106) 『星浩全集』(규15699) 권68, 「礪溪柳先生傳」

其舅李監司元鎮 世所稱太湖先生者也 博學多聞 先生從而受業

(107) 『星浩全集』 권68, 「礪溪先生傳」

(108) 鄭玉子, 1993 「미수 허목의 역사의식」 『조선후기 역사의 이해』 89쪽.

17세기에는 성리학과 이단을 절충하려는 이른바 會通主義가 近畿를 중심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주로 서경덕, 조식, 성운, 이항복의 학풍을 따르고 있었다.<sup>(109)</sup> 허목은 雜著를 통해서도 정렴에 대한 추모의 정을 표시했으며,<sup>(110)</sup> 朴枝華, 徐起, 李楠 등 정통성리학과는 구별되는 방향에서 하나의 사상조류를 형성하고 있던 인물들의 행적을 소개하였다.<sup>(111)</sup> 허목은 기본적으로 성리학자였지만 학문의 다양성을 취했기 때문에 이러한 도가적 성향을 일부 계승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그의 역사인식에도 일정한 부분 반영되어 있었다.<sup>(112)</sup>

윤휴는 국방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武를 중시한 대표적인 학자로 파악된다. 이것은 그가 「漫筆」의 첫머리에서 文武의 중요성을 동시에 언급하여

文과 武는 왕의 2가지 術이다. 文은 무엇인가? 교화에 힘쓰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다. 武는 무엇인가? 위엄있는 정치를 권장하고 禍亂을 막는 것이다. 一文一武는 때에 따라 소장이 있는데, 숨기면 밝혀지지 않고 남용하면 위엄이 없어지는 것이니, 어느 한가지도 폐할 수 없다.<sup>(113)</sup>

고 한 것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윤휴의 尙武 경향은 그가 「事實」이라는 편목에서 이순신 遺事를 비롯하여 ‘諸將傳’이라하여 鄭運, 宋希立, 李億祺, 柳珩, 鄭思立, 李莞, 陳武晟, 安衡, 金大仁, 元均 등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sup>(114)</sup> 특히 이순신의 庶女는 윤휴의 부친인 윤효전의 첩으로 들어가 윤휴의 庶兄인 尹鏞(1612-1685)<sup>(115)</sup>을 낳았다. 윤휴가 「遺事」의 첫머리에 이순신의 행

(109) 韓永愚, 1993 「17세기 후반~18세기 초반 洪萬宗의 會通思想과 歷史意識」 『한국문화』 12.

(110) 『記言』 別集, 권 14, 雜著, 「讀鄭北窓遺訓」.

(111) 『記言』 別集, 遺事, 朴守庵事, 徐孤青事, 李楠事 참조.

(112) 韓永愚, 1985 「許穆의 古學과 歷史認識」 『韓國學報』 40.

(113) 『白湖集』 권24, 雜著, 「漫筆上」.

文武王之二術也 文者何謂也 務教化安百姓之謂也 武者何謂也 威政 禍亂之謂也 一文一武 與時弛長 匿則無烈 玩則不震 廢一則不可

(114) 『白湖集』 권21, 事實 참조.

(115) 尹鏞은 野史인 『代嘯雜記』의 편찬자이기도 한다. (李泰鎮, 1988 「조선시대 野史발달의 趨移와 성격」 『金龍德博士停年紀念論叢』 114쪽 참조.)



적에 대해 자세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에는 이러한 家系上的 인연도 컸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외에 윤희는 광해군 인조대의 대표적인 북인관료 남이공의 조카로서 병자호란시에 훈국랑으로 남한산성을 방어하는데 공을 세운 南斗瞻의 墓誌銘도 써 주었다.<sup>(116)</sup>

그런데, 윤희의 이러한 상무경향을 이해하는데는 조선사회 자체내에 전통적으로 武를 중시하는 학자들의 흐름이 이어져 온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조선사회에 대한 인식은 15세기는 부국강병을 추구하는 국가적 입장에서 文武가 겸비되었으나, 16세기 이래로 성리학이 사회질서로 완비되면서 文弱으로 빠진다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물론 이러한 흐름이 대세화되어 가기는 했지만, 16세기 조식학과를 중심으로 한 일부 학자들, 특히 처사형 학자들의 학풍에는 金大有나 李恒, 朴英, 郭再祐 등의 예에서 보듯이 武는 매우 중시되었다.<sup>(117)</sup> 은거의 삶과 명산대천 유람을 즐기던 처사형 학자들은 몸을 단련하는 차원에서도 武를 중시하였다. 조식의 경우 武를 중시하여 칼을 한상 몸에 지니고 敬義를 신념화한 것이 임진왜란 때의 의병장 배출로 이어졌다는 사실은 이러한 분위기의 대표적인 것이다.<sup>(118)</sup> 17세기의 학자 중에서도 韓浚謙(1557-1627)의 경우와 같이 ‘수령이 된 자로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文教를 중흥시키는 것이지만 다음으로는 武庫를 다스려 武備를 돈독히 할 것’을 강조하거나<sup>(119)</sup> 金蠶國이나 유몽인등과 같이 戰馬의 공급 등 구체적인 방법으로 국방강화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았다.<sup>(120)</sup> 결국 윤희의 尙武 경향과 국방력 강화를 통한 북벌론 주장은 16세기 이래 조선사회내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던 尙武的인 흐름이 바탕이 된 것으로 여겨진다.

(116) 『白湖集』 권18, 「南公(斗瞻)墓誌銘」

(117) 拙稿, 1997 「16세기초 處士型 學者의 學風과 현실관」 『南冥學研究論叢』 5, 513-514쪽.

(118) 拙稿, 1990, 「남명 조식의 학문경향과 현실인식」 『한국학보』 58.

(119) 『柳川遺稿』 雜著, 「長水縣凝碧亭重修記」

余聞候之爲縣適四年矣 仁而撫民 勤而莅事 及其政成訟理公私稍裕 則首建鄉校 重文教也 次治戎庫敦武備也

(120) 韓明基, 1992 「柳夢寅의 經世論 研究」 『韓國學報』 67.

拙稿, 1992 『17세기 전반 북인관료의 사상』 『역사와 현실』 8.

실학자로서 유형원의 실용적 학풍은 이미 지적되었지만, 그의 사회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는 주로 중농주의 실학자라는 관점에서였다. 그러나 유형원의 사회경제사상은 전반적인데 걸친 것으로, 특히 상공업을 중시한 측면이 엿보인다. 이러한 점은 그가 농업만을 국부의 원천으로 보지 않고 상공업에서도 국부의 원천을 찾으려는 이지함의 사회경제사상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sup>(121)</sup> 실제 유형원은 이지함이 통상과 무역에 대해 혜안을 가진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sup>(122)</sup> 그가 저술한 『동국여지지』에서도 당시 생산되던 광물, 수산물 등에 대한 항목을 서술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당시의 수공업이나 광업의 발전, 또 상업에서 광물자원의 중요성 증가 등 사회, 경제적인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sup>(123)</sup> 李瀾은 ‘국조 이래로 時務를 알았던 분을 손꼽아 봐도 오직 이율곡과 유반계 두 분이 있을 뿐이다. 율곡의 주장은 태반이 시행할 만하고, 반계의 주장은 그 근원을 궁구하고 일체를 새롭게하여 王政의 시초를 삼으려했으니 그 뜻은 진실로 컸다’<sup>(124)</sup> 고 하여 유형원을 탁월한 경제가로 평가하였다.

유형원의 사회경제사상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화폐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이다. 유형원은

생각컨대 화폐의 유통은 국가의 경비를 넉넉히 하며 민생을 부유하게 하는 것으로 국가에서 반드시 시행해야 할 일이다. 우리나라에서 시행하지 않는 것이 어찌 제도가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가? 혹자는 우리나라는 토지가 척박하고 백성이 가난하여 비록 시행하려고는 하나 마침내는 시행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비록 토

(121) 이지함의 사회경제사상에 대해서는 拙稿, 1996 「土亭 李之菡의 學風과 사회경제사상」, 『奎章閣』 19 참조.

(122) 『五洲衍文長箋散稿』 권32, 「與蕃舶開市辨證說」

按柳馨遠磻溪雜識云 土亭李之菡嘗言 我國民貧 若於南方歲接琉球國洋船數三舶 可以瞻裕 ... 土亭磻溪皆 抱王佐之才 不爲署用 然素講經濟治平之策 豈无方來之慮而有所云云者乎

(123) 梁普景 1992, 「반계 유형원의 『東國輿地志』」 『토지연구』 3권 4호, 142쪽.

(124) 『성호사설』, 권 11, 인사문, 變法

(125) 『磻溪隨錄』 권8, 「田制後錄攷說」下, 「本國錢貨說附」

按錢貨 所以瞻國用而裕民生 有國之必可行者也 我國之不行者 豈非欠典乎 或以爲我國土 民貧 雖欲行之 終不可行 是則不然 土雖有饒 民雖有貧富 隨其饒 貧富而皆可行也

지의 비옥함과 척박함, 백성의 빈부 차이가 있더라도 그 척박함과 비옥함 빈부를 고려하여 시행할 수 있는 것이다.<sup>(125)</sup>

라고 하여, 무엇보다 國富의 증진을 위해 화폐를 사용할 것을 주장했다. 그리고 화폐의 유통을 물에 비유하여, 국가에서 화폐를 유통할 여건만 마련해 준다면 화폐의 유통은 절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였다.<sup>(126)</sup> 이러한 유형원의 鑄錢論은 17세기의 화폐유통론자인 김신국의 주장과 매우 흡사하다. 김신국은 ‘酒食換貿之法’을 제정하여 배고픈 사람들이 동전을 가지고 시장에서 쉽게 술 마시고 먹을 수 있게 하고 사람들이 이것을 즐겨할 때 동전 사용의 묘미를 알 것이라고 하였다.<sup>(127)</sup> 인조, 효종대의 관료학자 김육도 1647년에 개성유수로 있을 때 올린 「兩西請用錢疏」에서 당시 개성을 비롯하여 인근의 강화·교동·풍덕·연안 등지에 화폐가 널리 사용되던 현실을 지적하고 화폐의 사용을 ‘便民益國之事’로 인식하였다.<sup>(128)</sup> 유형원의 화폐에 대한 인식은 이들 관료학자의 사상적 흐름을 계승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제까지 남인 실학자들에 대한 연구는 그들의 중농적 입장에 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지만 유형원이나 정약용이 상업적 유통에 대해서도 식견을 가지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남인실학자들의 적극적인 상업관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민생에 필요한 것이라면 다양한 학풍과 사상을 수용하는 학문적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된다.

위에서 살펴본 것 처럼 허목, 윤희, 유형원의 학문적 특징으로는 성리학의 이론에만 빠지지 않은 博學風을 들 수 있으며, 이것은 이들이 당대의 현실에 필요한 것을 폭넓게 수용할 수 있는 한 바탕이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이들의 학문적 연원에는 16세기 이래로 축적된 조선사회의 학문적

(126) 『磻溪隨錄』 권8, 「田制後錄攷說」下, 「本國錢貨說附」

夫水 天下易流之物也 不開渠而欲其溉也 則終不可得 苟一朝開其渠而導之 則沛然流矣 錢貨之行也 亦何異於是

(127) 『인조실록』 권13, 인조 4년 윤6월 戊午.

(128) 『潛谷遺稿』 권4, 疏劄, 「兩西請用錢疏」

전통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서경덕이나 조식 학파의 박학풍도 그 중의 하나로서, 조식이나 서경덕 학파의 박학풍은 16세기 이후 처사형 학자들을 중심으로 주요한 흐름의 하나로 자리잡아 갔으며, 이들의 학풍을 계승한 이지함, 정구, 정인홍 등을 거쳐 근기남인학자들에게도 일정 부분 계승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박학풍을 추구한 학자들은 한편으로 학문에 있어서 깊이를 갖추지 못하는 한계성이 있었다. 즉 조식학파나 서경덕 학파는 이황학파나 이이학파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문에 대한 깊이가 적었으며, 성리학설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거나 학문에 기반을 둔 구체적인 사회경제책을 제시하는데는 미흡한 점이 많았다. 이러한 점은 이들 학파의 결속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문인들간에도 다기한 양상을 보이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이황학파나 이이학파는 학문적 깊이와 학문을 기반으로 한 학파의 강한 결속력을 바탕으로 17세기 중반이후, 정치, 사상계를 주도해 나갈 수 있었다.

#### 4. 현실인식과 처세

허목, 윤희, 유형원의 학문과 현실관은 處士라는 입지에서 기반한 것이 많다. 이들은 어느 기간 동안 관료생활을 했지만, 대부분의 생애는 처사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현실인식도 재야의 비판자적 입장이 두드러진다. 우선 이들은 공통적으로 당시 관료진출의 길이었던 科擧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이들은 당시의 과거제도가 학자들을 시험 그 자체에만 매몰되게 함으로써 학자들이 학문 연구 보다는 문장의 기교나 科文에 맞는 문장만 학습하는 경향만 커지게 하는 위험성을 지적하였다.

이들의 과거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처사적인 삶을 지향한 자신들의 처세와 특히 관련이 깊다. 유형원은 29세, 30세에 각각 과거에 응시했으나 낙방한 경험이 있으며, 33세에 조부의 권유로 進士가 되었으나 이후에 문과에는 응시하지 않았다. 허목은 박지계 사건으로 과거응시자격을 박

탈당하는 우여곡절을 겪었으며, 윤희는 21세 되던 해에 송시열로부터 병자호란의 치욕을 듣고 과거에 응시하지 않고 독서에만 전념하기로 결심했다.<sup>(129)</sup>

허목은 먼저 ‘과거가 엄하지 못하니 법을 무시하고 농간을 부리는 습속이 수십년 이래로 방자하기가 더욱 심하여, 과거마다 말썽없는 榜目이 없으니 사체가 매우 험악하다’<sup>(130)</sup>고 하여 과거가 엄정하게 행해지지 않고 있음을 비판한 후에, 國事를 그르치고 있는 근본 요인을 과거에서 비롯되는 用人에 있음을 지적하고 과거를 ‘亡國之術’이라고 까지 비판하였다.<sup>(131)</sup>

윤희는 천하의 법 중에서 과거제도보다 심한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sup>(132)</sup> 과거제도에 대해 철저히 비판적이었다. 당시의 과거제도는 인재를 공정히 선발해야 한다는 원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일반 士類들은 과거시험 준비를 위한 詞章 중심의 학풍에 빠진 점을 우려하였다.<sup>(133)</sup> 윤희는 과거제도의 구체적인 폐단으로 첫째, 學者의 心術을 파괴하여 예의염치를 모르게 하는 것, 둘째 修身과 職務를 알지 못하게 하는 것, 셋째 才器를 갖춘 자를 뽑지 않는 폐단 등 3가지를 들었으며,<sup>(134)</sup> 『만필』의 곳곳에서 과거제의 폐단으로 文弱함과 武를 천시하는 경향을 지적했다. 이것은 그의 학풍에서 武를 중시한 것과도 연결된다. 요컨대 윤희에게서 과거제는 비실용적, 비현실적인 학문을 조장하며 또한 尙文賤武의 文武分離를 초래함으로써 국방력을 약화시키는 제도적인 장치로 인식되었다.<sup>(135)</sup>

(129) 『白湖集』附錄, 年譜

十年丁丑先生二十一歲 春南漢解圍 ... 遇時烈於福泉寺前 始聞出城之報 幄手痛哭 自後不復應舉 杜門讀書

(130) 『記言』別集, 권4, 「論科擧不嚴劄」

伏以科擧不嚴 冒法弄奸之習 數十年來縱恣尤甚 每科無無言之榜 事體痛惡

(131) 『記言』別集, 권4, 「論科擧劄」

科擧不嚴 選用專私 朝廷汚濁 亡國之術也 此而不嚴 則終無以禁奸糾邪 國不爲國 爲天下後世笑無窮矣

(132) 『白湖集』권24, 雜著, 「漫筆上」

蓋天下之法 莫弊於科擧 莫拘於銓吏 科擧設俊民微 而文墨之士用矣

(133) 『白湖集』권27, 「公孤職掌圖說下」

說科取開自 之門 而士風壞文墨用 賢良策士之制廢 而俊民不興

(134) 『白湖集』권24, 「漫筆」上.

(135) 정호훈, 앞논문, 82-83쪽.

윤희는 이러한 과거제의 폐단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薦舉制의 실시를 주장하였다. 천거제는 조광조 일파가 정권을 잡은 후에 재야의 사림세력을 폭넓게 등용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賢良科를 실시한 것과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정치적으로 입지가 약한 세력이 주로 선호하였다. 윤희의 천거제 주장도 전통적인 관료충원 방식이 생리에 맞지 않는 그의 처사적인 입지에서 나온 측면이 크다.

유형원 또한 과거제의 폐단을 지적하고 貢舉制의 실시를 주장하였다. 유형원은 과거제도의 폐단이 무엇보다 과거가 출세의 도구가 되고 있음을 비판하고 선비로서 학문에 뜻을 두어도 오직 옛 문구만 모으는 것에만 치중하는 현실을 개탄하였다.<sup>(136)</sup> 정조대의 학자 이덕무는 ‘科擧가 사람을 그르친다고 논한 선배들의 글’에서 유형원이 과거제도를 가리켜 ‘천하만세를 깊은 밤처럼 어둡게 한 것’이라고 말한 사실을 글의 첫머리에 인용하기도 했다.<sup>(137)</sup>

이처럼 허목, 윤희, 유형원은 과거시험 자체와 인연이 멀었으며, 과거제도 자체를 비판하였다. 특히 이들은 과거제도 자체가 문장의 암기에만 그쳐 결국은 비실용적이고 비실무적인 학문경향을 낳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점을 특히 비판하였다. 이들은 과거제도에 대한 대안으로 천거제를 주장했는데, 이러한 천거제의 주장에는 처사적인 삶에 오랫동안 익숙했던 이들의 입지가 큰 작용을 하였다.

조선사회에서 16세기 이래로 지방사회에서 주요한 정치, 사회세력으로 부상한 처사형 학자들<sup>(138)</sup>은 과거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과거

(136) 『磻溪隨錄』 권12, 敎選攷說下, 「本國選舉制附」

今世進士之途 惟科目一門 故士之有於學者 亦不免屈意就之 而科業之士 惟以抄集爲務

(137) 『靑莊館全書』 권58, 央葉記, 「先輩論科擧誤人」.

柳處士馨遠 磻溪雜識曰 鄭伯虞言 科擧取人之法 作於隋場 楊廣之罪 固不可勝誅 而此爲其罪之大者 何也 弑逆之罪 罪當其身 而足爲千萬世之戒 使天下萬世如長夜者 科擧之害也

(138) 조선시대에는 국가를 경영할만한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당대를 난세로 인식하여 출사를 단념하고 초야에 은둔한 일군의 선비들이 존재했다. 16세기에는 사화의 여파로 이러한 선비들이 다수 존재했는데, 이들은 隱士,

응시보다는 산림에서 학문을 닦는 것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16세기에 4차례에 걸친 사화를 겪은 이후 사람사회에 상당히 팽배한 분위기였다.<sup>(139)</sup> 그러나 명종, 선조연간 이후 다시 사람정치가 구현되면서 학자들 사이에서는 과거를 통해 관직에 진출하고, 관직생활에서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 주류적인 흐름이 되어 갔다.

그러나 조식, 서경덕 등 16세기의 일부 처사형 학자들은 여전히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과거 보다는 修身과 실천을 위한 학문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조식은 스스로 자신의 학문이 科文에 맞지 않다고 하였으며, 선조대에는 과거시험에 老莊文字를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sup>(140)</sup> 조선중기의 대표적인 고문파 문장가인 최립은 ‘科擧之文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뜻이 없고 실용이 없는 문장’이라고 파악하였다.<sup>(141)</sup> 양명학자로 유명한 정제두의 경우에도, 그가 24세 때에 과거에 떨어지고 다양한 학문에 접하는 점이 주목된다. 그는 과거에서 別試로 初試에는 합격하나 殿試에서 낙제하였으며, 이후에는 그는 과거를 포기하고 다양한 책을 섭렵하였다. 이때에 본 책은 음양, 星曆의 數와 兵事·농업·의술·약재의 이론과 堪輿·卜筮의 기술에서부터 패관소설과 子集·典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다.<sup>(142)</sup> 결국 과거를 포기한 대신에 남는 학문적 열정이 다양한 학문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나고 이들 가운데 대학자가 출현한 것은 조선사회가 지닌 긍정적인 측면으로 여겨진다.

결국 허목, 윤희, 유형원이 과거제 자체를 비판한 것은 이들의 처사적인 삶의 경험도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많은 시간을 산림에 은거하면서 다양한 학문세계를 접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경험은 당시의 주류적 흐

遺逸, 隱逸, 逸士, 處士 등으로 불렸다. 이러한 처사형 학자의 전통은 17세기 이후 산림학자로 계승된다.

(139) 『宣祖修正實錄』 권20, 선조 19년 10월 壬戌.

(140) 『許筠文選』 「惺翁識少錄」下.

伸命該曹 科場論策 禁勿用老莊

(141) 『簡易集』 권9 「贈吳秀才竣序」

科擧之文 ... 以足乎己則利而非必意也 以悅乎親則名而非必實也

(142) 鄭在薰, 1993 「霞谷 鄭齊斗의 陽明學受容과 經世思想」 『韓國史論』 29 140 쪽 참조.

름이 되어가던 주자성리학만을 고집하지 않을 수 있는 요인이 되었다. 윤희는 효종대에 잠시 관직에 진출했으나, 1674년의 기해예송이후 서인들의 배척이 심해지자 驪州에 은거하여 두문불출하면서 독서와 학문에 전념했으며, 허목과 유형원도 기본적으로 처사의 입지에서 저술활동을 하였다.

이들은 학풍과 사상에 있어서는 공통적인 측면이 많았지만 사회경제정책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모습을 보였다. 허목은 禮學의 강조를 통하여 혼란된 당시 사회를 수습하려는 禮治論者였으며, 尹鑣는 실무 행정을 맡아보면서 다양하고 적극적인 개혁책을 추진했으나, 당시의 정치와 사회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들이 많았다. 유형원은 재야에서의 비판의식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근원적인 사회경제책을 제시했으나 당대의 현실사회에서는 그의 개혁책이 반영되지 못하였다.<sup>(143)</sup>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의 사회경제정책의 중심에는 六經 古學을 중심으로 하는 복고적인 학풍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사회의 모순을 지적하는데는 적합한 부분이 많았지만 당시의 사회를 진보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발전시켜 나가는 새로운 학문과 사상의 개발에는 미흡했다. 이들의 이러한 사상적 한계는 결국 정치적으로도 우위에서 서지 못하는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허목, 윤희, 유형원의 학풍의 선구적 형태를 띠는 16세기 이래의 처사형 학자들은 의학, 병법, 도교 등 다양한 사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자유로운 위치에서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서 16세기 초반의 정치적 격변기에 현실 비판자로서의 소임을 다하는 한편, 일부 학자는 정계에 등용되어 당시 사회의 모순을 제거하는데 노력했다. 또한 다양한 학문과 사상의 수용을 통하여 학문의 폭과 저변을 넓혀가는데 기여하였으며, 이러한 흐름은 17세기에도 이어졌다. 결국 16세기 조선사회에서의 처사형 학자의 존재는 정치참여층의 확대와, 다양한 학문과 사상의 내적 축적이라는 측면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었다면, 17세기의 시대적 조건에서는 이들의 비판의식이 정치에 자연스럽게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현실을 지나치게 비판적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현실에 적용되는 구체적

(143) 17세기 후반 근기남인학자의 예론과 사회경제사상에 대해서는 고영진, 1994 「17세기 후반 근기남인학자의 사상」 『역사와 현실』 13 참조.



인 時務策을 제시하여 이를 국정에 반영하는 것 보다는 여전히 비판자적인 입지가 강하였다. 허목의 경우 당시의 사회현안이 되었던 호포법, 둔전의 실시, 북벌론 등에 모두 비판을 하면서 內修를 통한 自強을 강조한 것이<sup>(144)</sup> 대표적인 예이다. 이것은 그가 여전히 정치적 관료보다는 비판적인 처사의 입지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허목은 30년 간 관직생활을 했지만 처음 관직을 받은 것이 56세 때로서 그의 삶의 중심은 處士的인 생활태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윤휴는 북벌론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兵車제조, 戶布法실시, 紙牌法실시, 體府설치 등 다양한 사회경제책을 제시했지만 당시의 현실과는 거리가 멀고 일을 무리하게 추진했기 때문에 반대파들의 집중적인 견제를 받았다. 이것은 윤휴 또한 현실 정치 감각이 미약한 산림 처사의 학자로서의 입지가 강했음을 의미한다. 유형원은 구체적인 사회경제 개혁책을 구상했으나, 재야의 처사형 학자에 불과했기 때문에<sup>(145)</sup> 그의 개혁책은 100여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빛을 볼 수 있었다.

결국 이들의 현실관과 이를 바탕으로 한 사회경제 개혁책이 정치에 바로 반영되어 정책화되지 못했던 요인으로는 이들이 여전히 비판성향이 강한 처사의 입지에 있었고, 학문적 역량을 정치적 힘으로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변통력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이들이 결국 변화하는 시대의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서안에서 노론으로 이어지는 정치세력에게 정국운영을 넘겨주는 한 원인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144) 『記言』別集, 권3, 疏劄, 「陳師旅之戒劄」

試觀今日之事 我之兵力削弱 人心離散 國勢憂危 天災百出 當今之務 內外戮力 收人心 選將帥守要害 修器械備我之不虞 猶恐其不及 不見丙子之亂乎 當時乘反正中興之烈 與奴絕和親 遣將益兵以防胡 一朝奴將驅 不幸王師函敗 宗社之辱 生民之禍 國不滅幸也

(145) 이덕무의 경우에도 그의 저서인 『靑莊館全書』에서 유형원을 ‘처사’로 표현하고 있다.

(『靑莊館全書』, 士小節 권2, 祀典, 「動止」處士柳馨遠曰...)

## 맺 음 말

이상에서 17세기 중·후반의 근기남인 학자를 대표하는 윤희, 허목, 유형원의 학문적 연원과 학풍, 현실관 등을 살펴보았다. 이들은 지역적으로 서울 근교에 생활권을 두어 근기남인학자로 지칭되지만 실제로는 서울 근교 이외의 전국 각지에 생활한 다양한 경험을 지니고 있었으며, 스스로 전국을 유람하면서 현실을 보는 눈을 넓혀갔다.

한편 이들의 학문적 연원에서 주목되는 것은 서경덕과 조식의 학맥을 기반으로 하는 북인들의 학문적 영향력이 컸다는 것으로 이러한 점은 3인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윤희의 아버지 윤희전이 광해군대 북인의 핵심 인물이었다는 것과 유형원의 부친 유희이 유몽인의 옥사 사건에 연루되어 처형되었다는 정치적인 입장 이외에도 이들은 직접, 간접적으로 서경덕과 조식의 학문적 영향력을 받았음이 드러나고 있다.

윤희의 외조부 김덕민은 성운과 조식의 문인으로서 정인홍과 교류했으며, 윤희 또한 화담집의 중간 서문을 쓰는 등 서경덕을 존송했음이 확인되고 있다. 허목의 아버지 허교는 서경덕의 문인인 박지화로부터 학문을 배웠으며, 허목은 부친의 임지를 따라 창녕, 의령 등 경상우도의 각 지역을 답사하면서 경상우도의 사림학자들과 교분을 넓혀갔다. 허목이 『기언』의 「世變」 등의 글에서 己丑獄事로 희생된 최영경과 정개청의 사적에 대해 자세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은 허목의 사상에 조식, 서경덕학파의 입장이 깊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유형원 또한 북인계 관료학자로 분류될 수 있는 고모부 김세렴으로부터 학문을 배웠으며, 서경덕의 문인으로서 상업과 무역을 중시한 이지함의 학풍을 주목하기도 했다.

특히 이들 학자들의 학풍에서 나타나는 학문적 다양성과 주자성리학만을 고집하지 않는 학문의 개방성, 그리고 윤희나 유형원에게서 볼 수 있는 武를 중시하는 경향은 조식학파의 학풍에서 특히 두드러진 것으로서 이들의 학문과 사상에서 북인적 기반이 컸다는 점은 결코 간과할 수 없다.

한편, 이들은 기본적으로 향촌에 은거하면서 학문을 닦는 것을 업으로

하는 처사형 학자의 풍모가 강하였다. 이들은 관직에 등용되어 관료로서 사회경제적 이상을 실천할 수 있는 길 보다는 처사로 자임하면서 다양한 학문에 침잠하는 길을 선택했다. 이들의 학문적 능력이 널리 알려지면서 허목과 윤희가 山林으로 징소되고, 이후에 예송논쟁을 거치면서 남인의 정치적 영수로 추대되기도 했지만, 이들은 기본적으로 관료학자의 체질을 갖추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과거시험을 통하여 관직에 진출하여 현실세계에서 자신의 정치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관료학자와는 그 출발점에서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이들의 사회경제 개혁책은 그 가지는 의미는 매우 컸으나 윤희의 경우와 같이 당시의 현실에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것이 많았으며, 허목은 산림학자의 위치와 현실 정치가의 위치에서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채 예치의 회복으로 당시 사회경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한계성을 지녔다. 이것은 이들이 다양한 학풍을 지향했지만 치밀한 학문적 검증을 바탕으로 한 사회경제정책을 제시하지 못했고, 사회경제책의 구체적인 모델을 三代의 이상사회에 둬으로써 당시의 사회현실을 극복하는 전진적인 방안 보다 복고적인 방법으로 이를 해결하려 것에도 원인이 있었다. 원시유학인 六經古學에 근본을 둔 이들의 복고주의 학문경향은 ‘옛 법이 옳다’는 입장에서 선 논리로서 당시의 사회모순에 대한 비판적인 사상으로서는 큰 의미가 있었지만 현실정치에 탄력성있게 적용되지 못한 한계성을 가져다 주기도 했다.

이들은 기존의 연구에서 보여지듯 이황학파가 주축을 이루는 남인과 정치적 입장을 함께 하였지만, 학풍과 사상적 특징은 이들의 학문적 연원이나 학풍의 특징에서 나타나듯이 서경덕학파와 조식학파로 대표되는 16세기 이래의 처사형 학자의 학풍과 유사한 점이 많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서경덕학파와 조식학파가 주축이 된 북인이 정치적으로 패배했다는 점 때문에 이러한 측면이 간과된 점이 없지 않으나, 이들의 가계나 학문적 교유관계, 사회경제책 등에 나타나는 학문적 기반은 북인들의 학풍과 많은 부분이 접목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근기남인 학자들의 실학풍은 그 시대의 독특한 학문적 흐름이 아니라, 16세기 이래의 다양한 학풍과 사상

적 흐름이 내적으로 축적되고 발전된 바탕위에서 나온 학풍임이 분명해진다.

· 근기남인학자들의 학풍과 사상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연구시각은 조선 후기 학문의 내재적 흐름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필자 : 서울대학교 규장각 조교)